## 월/요/광/장

장병완

# U대회는 인재 양성 촉매제다

지구촌이 글로벌화되면서 세계는 정치적 국경만이 존재할 뿐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를 형성해 가고 있다.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도시 간 경쟁과 연합이다. 지난 20세기가 국가간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이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계무대에서의 외교력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광역도시는 물론 작은 도시까지 앞다투어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광주시의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도전은 성패를 떠나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 U대회는 2년마다 세계 170개국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문화, 교육, 체육을 통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다. 국제 체육행사인 만큼 경제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다.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 시절 광주시의 U대회 유치 승인이 벽에 부딪혔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할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 총리실과 관계부처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국비 20억원을 유치활동비로 지원했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고향에 돌아와 호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U대회 유치의 필요성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광주의 발전은 물론 21세기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렵고 대학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고용 없는 성장' 탓에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대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방의 거센 파고는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0년 후 입학자원이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학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세계로 눈을 돌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각국의 유명 대학들과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U대회 유치는 광주지역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의 첫걸음은 지역의 인재들에게 우물 밖 세상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일이다. 학생들이 지역을 세계로, 세계를 지역과 소통시키는 소통의 리더십을 배우고 어떤 국가나 민족과도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적 비즈니스 마인드를 익힐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 미래의 세계 지도자가 될 170여개 나라의 대학생들을 광주로 불러들여 우리 학생들과 친교를 쌓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자산을 쌓는 것이다. 학생들이 큰 비용과 시간적 부담없이 안방에서 세계 학생들과 어울려 국제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86아시안게임, 1988올림픽,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전국 광역시중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곳은 광주뿐이다. 광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국제대회 개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촉매제이다.

두 달 전 광주를 제치고 2013년 U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러시아의 작은 도시 카잔은 대통령까지 나서 유치전을 펴는 등 메가톤급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하지만 카잔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 끝에 U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U대회는 광주가 첫 도전한 국제행사다. 첫 도전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한다면 그간 축적한 인맥과 노하우(know-how)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비록 패배의 쓴맛을 보긴 했지만 내일의 성공을 위한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U대회 유치 재도전을 통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광주의 대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화의 초석을 놓아주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호남대 총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윤춘주

# 이혼에 대한 단상

광주지방법원 3층에 이혼법정이 있다. 법원에 드나들다 보면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 삶에 지친 무표정한 얼굴들을 보게 된다. 이혼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필자도 이혼 사건을 많이 맡게 된다.

요즘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아내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지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필자가 자라던 시대에는 여자가 정조를 잃으면 죽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고 영화의 단골소재였다. 아마 요즘의 중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는데, 아내의 외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혼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닥치게 된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이혼이 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위자료)를 배상해야하므로 이혼에 있어 간통죄로 처벌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간통죄는 실제 간음을 했음을 적발해야 하는데, 성행위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은 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간통죄로 처벌하기에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로는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도록 혼내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이혼소송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것 같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방이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재산을 지킬 마땅한 권리가 없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유로 재산을 가압류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혼의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이다. 불과 십여년전만 해도 남편의 외도나 폭력 또는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나 이혼이 가능했고 특히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가정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이혼이 가능한 실정이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이자 신성한 공동체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한다. 이혼은 자신의 몸을 잘라버리는 일이 아닐까? 내 몸이 문제가 있다고 잘라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료와 운동으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분명한 해답이다.

이혼 이후 아빠 또는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겪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일단 결혼 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유행가의 가사가 평범한 진리로 다가온다.

〈변호사〉

## 기 고

강우석

# F1대회 성공 개최, 시·도민이 함께 나서야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2010년 영암에서 열린다.

F1대회는 최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로서,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TV 시청자를 확보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F1대회를 통해 약 2조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만성 적자인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 자동차 산업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국가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F1 대회 개최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F1 특별법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17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었고, 대회운영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분구조개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F1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털어내고 F1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지난 8월25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여·야 79명의 서명을 받아 임태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 여· 야 중진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 제정 전망이 밝다.

또 영암군에 건설 중인 F1 경주장은 지난 5월 2일 SK건설(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제1금융권이 참여하여 SK건설(주)을 주시공사로 선정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통해 현재 토목공정률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제 F1대회가 국가행사로 인정받고 본격적인 정부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유수의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F1 대회를 준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제 2010년 F1대회는 당연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인 주민의 참여와 지원이 없다면 F1 대회의 성공 개최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2010년 한국 최초의 F1 대회가 2여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광주시민·전남도민 모두 성공적인 F1대회를 통해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대의 국제스포츠대회는 단순한 경기 대회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국가와 지역의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전남에서 2010년에 개최될 F1대회가 바로 그러한 기회이다.

F1대회를 통해 희망찬 전남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고, 전 시·도민이 하나 되어 반드시 F1 대회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 시·도민의 지지와 참여가 바탕이 된다면 한국 F1대회는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념비적 대회가 될 것이다.

〈전남도의회 F1지원특위 위원장〉

## 사 설

# 전남대 로스쿨 인재유출 방지 대책 있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한 곳인 전남대가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대 로스쿨은 오는 10월 입시전형에 들어가 내년 3월 문을 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로스쿨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수한 법조 인력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로스쿨이 정착되면 법조인 선발과 양성체제, 법률시장이 새 국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에 있는 전남대의 경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법률 수요와 법조 인력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경쟁을 해야 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공존하는 과도기 체제도 극복해야 한다.

관건은 우수 인재의 유치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광주·전남 수험생은 251명이었다. 응시자 전원이 120명 정원인 전남대에 지원해도 3배수(360명)을 넘지 못한다. 지역 응시자 상당수가 서울지역 로스쿨로 갈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자칫 미달사태까지 빚을 수 있다.

전남대는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실력있는 교수진 확보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등 혜택 확대는 필수적이다.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의 현실 및 요구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실전형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로스쿨은 법률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전남대 로스쿨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개원하는 만큼 인권과 소수자 보호, 농어민 분쟁,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이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로스쿨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정치권, 정쟁 털고 민생법안부터 챙겨라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원 구성 협상부터 대립해온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순탄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이미 2차례의 임시국회조차 허송세월했다. 자칫 민생이 실종될까 걱정이 앞선다.

전운은 감돌고 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여야가 뒤바뀐 이번 국회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도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쟁점사안은 수두룩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공기업 통·폐합, 좌(左) 편향, 반(反) 기업 법령 정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말로는 경제국회, 건전한 정책국회를 다짐하고 있다. 정치공방을 접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민생 우선과 정책대결을 수없이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은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국내외 상황은 심각하다. 민생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파탄 직전에 몰려 있고 북한을 비롯 미국, 일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처럼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 자살 예방 대책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 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천상병의 시 '나의 가난은' 중 일부다. 평생 가난과 기행으로 일관한 시인의 면모가 엿보이는 싯구지만 그처럼 달관하며 살기 힘든 것이 우리 일상사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를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잘 나가는 집안은 근심없고 건강하며 화목한게 비슷하지만, 잘못된 집안은 불행의 이유도 천차만별 각양각색이라는 얘기다. 이 세상 불행한 사연은 다양하다. 그러나 결말은 제각각이다.

지난달 22일 강릉에서 세살과 여섯살 어린이 자매가 생옥수수로 연명하며 4일간 죽은 엄마의 시신과 함께 지내오다 발견돼 충격을 던졌다. 남편·아빠와 별거하며 살았던 이들의 원룸에는 시신 썩는 냄새와 함께 술병이 널부러져 있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11살 아들, 5살 딸과 함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한국인은 불행하다.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178개 나라 중 102위였다. 1위는 히말라야의 빈국 부탄. 돈과 행복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압도적 1위다.

정부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치사에서 "국민성공시대를 넘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이 위정자들의 말이나 다짐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고유가 시대 나홀로 자가용 자제를

최근 고유가로 통행하는 차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 홀로 차량이나 가까운 거리인데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차를 말(馬)로 바꾼다면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할까? 소형차인 마티즈가 52마력 정도 되니까 짧은 거리든 먼 거리든 52마리의 말들이 모는 것과 같다. 자신이 50마리 이상이 끄는 말을 타고 거리로 나간다고 생각해 봐라. 거리는 비좁고, 말의 배설물로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말을 먹이기 위해 드넓은 목초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속에 있는 말을 먹이기 위해 석유를 주고 말이 배설하는 매연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자동차의 경우처럼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 또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가계의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가계의 소비적 요소를 막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김재직·한국수력원자력 영광본부

# 이장한 폐묘 흉물 안되게 수목을 심자

요즘 납골당이 활성화되는 등 우리나라 장례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개장 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묘를 파고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일이야 백번 잘하는 일이지만 파헤친 폐묘들이 무척 흉물스러웠다. 마치 도굴된 현장처럼 흙이 사방으로 널려 있고 움푹 팬 자리는 더욱 흉측해 보였다.

우리 가족은 분묘를 개장한 후 인부들에게 돈을 더 주고 분묘를 다시 잘 마무리한 뒤 소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인근 다른 분묘들은 파헤친 채여서 여간 흉측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개장 후 다시 흙을 덮으면 후손들이 잘 안풀린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냥 방치해 놓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네 집안만 잘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 그 분묘가 있는 마을사람들의 앞날에는 관심도 없고 그 분묘로 인해 주변 분위기나 모양새가 흉측하든지 말든지 관심없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납골당 문화가 확산돼서 기존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뒤 납골당으로 모시는 사례가 적잖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텐데 앞으로는 분묘 개장할 일이 있으면 그냥 방치해 놓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돌아가자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면 후손들이 그 나무처럼 틀림없이 번창할 것이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 |
|---|---|---|---|---|---|
| 편집국안내 | | 사회2부 | 2200-619 | 경영지원국 | 2200-511 |
| 〈대표 FAX | 222-4918〉 | 〈FAX | 227-0118〉 | 〈FAX | 222-8005〉 |
| 편집부 | 2200-629 | 문화생활부 | 2200-626 | 광고마케팅국 | 2200-521 |
| 정치부 | 2200-616 | 여론매체부 | 2200-628 | 〈FAX | 227-9500〉 |
| 경제부 | 2200-617 | 체육팀 | 2200-627 | 디자인 | 2200-536 |
| 사회1부 | 2200-618 | 사진부 | 2200-690 | | |
| 〈FAX | 222-4267〉 | 조사부 | 2200-570 | | |

| | |
|---|---|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AX | 222-0195〉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 〈FAX | 227-9500〉 |
| 서울지사 | 02-773-9331 |
| 〈FAX |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